

# '90년대 강남큰손' 조춘자, 또 억대사기

### '강남 큰손' 조춘자 또 사기 혐의 지인 등으로부터 11억여원 편취 1심 '동종 전력 다수' 징역 4년형

1990년대 수백억원대 아파트 분양 사기 사건으로 일명 '강남 큰 손'이라 불리던 조춘자(74)씨가 또 다시 수억 원대 사기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을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

된 조춘자(74)씨에게 지난 1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9년 부산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B씨에게 접근해 "사업자금 500억원을 일시 예치해줄 테니 진행비 5000만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해 B씨에게서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B씨

에게서 함께 5억5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다니던 교회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것을 알게 되자 "내가 진행하는 아파트 분양 사업에서 수익이 나면 50억원을 교회에 현금하겠다"고 속여 교회 목사 등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조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함께 7억원이 넘고, 9억원이 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며 "피고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

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한다"며 조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1990년대 수백억원대 주택 조합 사기 사건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조씨는 1991년 서울 구의·광장동 주택조합 등지에서 가짜 분양권을 나눠 주는 수법 등으로 수백억원대의 사기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2010년, 2011년, 2020년에도 동종 사기 혐의로 각각 실형을 확정 받았고 현재 복역 중이다.

서선욱기자



### 광주 동부소방, 시장 내 점포 자율점검 '안전하기 좋은 날'

광주 동부소방서는 지난 8일 오전 남광주시장 일원에서 시장 내 점포 자율점검 '안전하기 좋은 날'을 실시하였다.

이슬비기자



### 광주 남부소방, 여성이용소방대 전문성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

광주 남부소방서는 남부소방서 여성이용소방대 14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 담양소방, 담양댐에서 고립된 요구조자 신속구조

담양소방서는 지난 3일 18시경 담양군 용연 담양댐 독방에 고립되어있던 요구조자를 안전구조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 여수소방, 청소년 임시보호시설 방문 소방안전점검·설치 실시

여수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청소년터전(청소년 임시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생활안전서비스 제공 및 화기시설 소방안전점검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 순천경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대책회의 개최

순천경찰서는 지난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각 과장, 지역경찰관서장들과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 광주지방보훈청, 2023년도 보훈사업설명회 개최

광주지방보훈청은 지난 7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광역시 16개 보훈단체장을 초청하여 보훈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김재환기자

## "추운날 집밖서 떨더라" 숨진 명투성이 어린이 학대정황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영하의 추운날씨에 밖으로 쫓겨나 떨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봤어요. 친모는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8일 오전 8시40분경 인천 남동구의 모 아파트 현관 앞에는 어린이용 자전거, 키보드와 함께 '출입금지' 문구가 적힌 노란 플리스 라인이 붙어 있었다.

전날 이 세대에서 초등학교 5학년 A(11)군이 온몸에 멍이든 채 사망했다. A군의 친부 B(39)씨는 같은 날 오후 1시44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군의 몸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자국여

러개를 발견하고 친부 B씨와 계모 C(42)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찾은 아파트에서 A군이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주민의 증언이 나왔다.

영하의 날씨에 마른 체형의 A군이 집 밖으로 내몰려 추위에 떠는 모습을 수차례 봤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 D씨는 A군을 떠올리며 고개를 떨궜다. 아이가 학대를 당한다고 생각해 신고하려 했으나, 정황만 있고 증거가 없어 정작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자신을 탓했다.

D씨는 "A군이 집밖으로 쫓겨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다"며 "겉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오라는 부모의 말만 기다리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번은 현관문 넘어로 '이제 들어와'라는 A군의 부모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며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너무 안쓰러웠고, 누가 봐도 C씨가 친모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B씨 부부에게 아들이 있었는지 물었다는 주민들도 있다.

"B씨가 딸들을 데리고 집 앞에서 놀아주는 모습을 종종 봤다"며 "아들이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했다. 다른 주민도 "딸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는데, 아들에 대해서는 듣는 바가 없다"고 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학교에 가지 않고 부모가 집에서 직접

돌보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뚜렷한 이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관리대상 학생으로 분류됐다.

B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 준비를 위해 홈스쿨링하고 있다"며 A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한 이들 부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통해 실시간으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폐쇄회로(CC) TV가 발견되긴 했으나, 녹화된 영상은 없었다.

경찰은 A군의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B씨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재환기자



### 튀르키예로 출국 준비하는 긴급구호대

튀르키예에 지진 실종자 수색 및 구조를 위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원들이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준비하고 있다.

## 판돈 100원 때문에...이웃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18년

### 항소심에서 피고인·검사 항소 기각

'쌈치기'에 건 판돈 때문에 이웃 주민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10시24분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아파트 단지 입회에서 주민 B(40대)씨를 흉기로 찔

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파트 단지의 벤치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4~5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이웃들과 쌈치기를 하던 중 B씨로부터 심하게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100원을 걸겠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B씨가 "다른 사람들은 1000원을

거는데 너는 왜 100원을 거냐"며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폭행으로 시력 저하가 생길 정도로 상해를 입은 A씨는 분에 못이겨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다른 동네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1심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에서 원심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기동취재본부

## 상가·주택 돌며 금품 훔친 형제 3명 검거

### '유혹·도박 자금' 마련 위해

서울과 경기도의 상가와 주택을 돌며 총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B씨 형제와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C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B씨 형제는 최근 검찰로 송치됐으며, C씨는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한 달 동안 상가, 주택에 침입해 금고 안에 있는 현금과 귀금속, 카드를 훔치고 이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 B씨 형제는 경기 의정부, 동두천, 연천군, 성남시 등에서 28건의 절도 범행을 통해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으며, 훔친 카드를 택시와 편의점에서 16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혹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서울 강북구, 광진구, 동작구 소재 주택을 대상으로 11회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관내에서 비슷한 유형의 절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분석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후 잠복근무와 함께 피의자가 자주 출몰하는 상점에 전단지 배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고, 하루 만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뉴시스